

2018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인문계열)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유럽에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정은 믿음의 발전과정이다. 믿음은 시장의 탄생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믿음은 모든 시장 경제의 기본이 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대규모 상업 거래의 토대가 되었다. 유럽에서 경제 행위가 시작되던 시기에, 곧 상인들이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 다니거나 유럽의 큰 강줄기를 따라 형성되었던 장터에서 서로 만나곤 했을 당시에는, 아직 사법 체계와 재판 절차, 제재 규정이 취약했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곳도 많았다. 하지만 당시의 복잡하고 위험하며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거래에서는 진정 상대편을 신뢰해야 했다. 상대편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 제대로 상품을 보낼 것이라는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야말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 주는 중요한 보증이었다.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그 상대편도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대편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기에, 나도 상대편을 신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뢰로 인해 유럽은 공동체를 형성했고, 교역은 새로운 형태의 우애가 되었다. 유럽이라는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고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생김으로 인해 상품의 양이 늘어났고 상업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만남도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 믿음은 신뢰를 낳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 시장과 부를 낳았다.

이러한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자산이었다. 예컨대 화폐, 담보, 은행이 존재했다라도 니콜로라는 사람이 미구엘이라는 사람을 신뢰했고 그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 덕분에 거래가 성사되곤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험은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기에 내재적으로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점 때문에 인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서 이런 믿음이 파괴되었을 때 자본주의가 생겨났다. 자본주의는 점차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에 의해 구현되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 냈다. 유럽은 이런 새로운 믿음에 바탕을 두는 자본주의에 의해 재건되었다. 하지만 이는 근대 이전의 믿음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자본주의적 믿음은 더 이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제적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의 중요성이 경시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적 신뢰가 빠진 신용이 점차 확대되어 성장률을 낮추고 심지어 경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제 위기를 부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신뢰라는 인간관계와는 너무도 동떨어지고 무관한 금융 제도를 구축했던 데에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는 은행이라면 곤경에 처한 건실한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인간적인 신뢰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 간의 만남도 없이 그저 컴퓨터 시스템에서 나온 대출심사 결과 수치에만 의존하며, 이로써 비인간적인 방식이 되고 만다.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서로 만나야 하고, 사람들을 신뢰해야 하며 그들의 취약성까지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와 금융 거래에서 상대편의 얼굴을 대면하는 만남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 같은 거래는 비인간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차원에서 믿음을 다시 찾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묘책이나 통치 체제도 진정 우리를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시문 (나)

근대 경제사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성장이란 단어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근대 경제는 마치 호르몬이 넘쳐나는 십대처럼 성장해왔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경제는 대체로 같은 규모를 유지해왔다. 물론 지구 총생산은 증가했지만, 이것은 대체로 인구 팽창과 정착지의 확대 덕분이었다. 1인당 생산은 정체 상태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대에 와서 바뀌었다. 서기 1500년 재화와 용역의 지구 총생산은 약 2,050억 달러였는데, 오늘날 이 수치는 60조 달러까지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기 1500년 연간 1인당 총생산은 550달러였지만 오늘날 모든 남녀와 어린이가 1인당 연평균 8,800달러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근대 이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 왕자, 성직자, 농부 모두 인간의 생산은 일정하고, 부자가 되는 길은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의 손자들도 더 나은 생활수준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경제적 정체는 큰 원인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이유는 근대 이전에는 신용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신용거래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성장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에 이르러 은행-그리고 경제 전체-을 살아남게 하고 꽃피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뢰다. 오로지 이 신뢰가 세계의 돈 대부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돈은 무수히 많은 것들을 대표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른 거의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다. 하지만 근대 이전에는 이 능력이 제한적이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제한된 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경제는 얼어붙어 있었다. 이 한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었다.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이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은 상상 속의 재화를 신용이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돈으로 대체하게 하는 데 동의했다. 신용은 미래를 비용으로 삼아 현재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다. 신용은 우리의 미래 자원이 현재 자원보다 훨씬 더 풍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한다. 만일 우리가 미래의 수입을 이용해서 현재에 무엇을 건설할 수 있다면 새롭고 놀라운 기회가 수없이 많이 열린다. 근대 이후 진보라는 아이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점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신뢰는 신용을 창조했고, 신용은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제시문 (다)

남산 밑 묵적골(墨積洞)에 살며 책 읽기만 즐겨하던 가난한 선비인 허생은, 어느 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의 질책을 듣고 집을 나간다.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종가*로 나가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 씨(卞氏)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 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 씨를 대하여 길게 읊**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을 꾸어주시기 바랍니다.”

변 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변 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이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 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 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매,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굴, 유자 등 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쏟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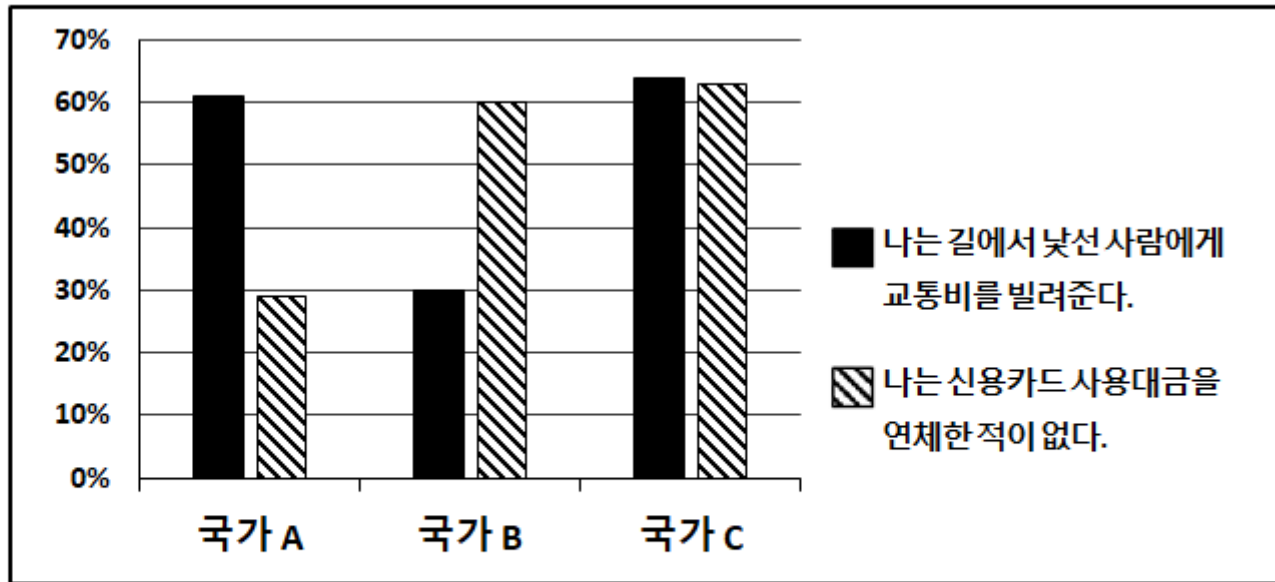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운종가: 조선 시대에, 서울의 거리 가운데 지금의 종로 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곳.

**읍: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제시문 (라)

아래 그래프는 가상의 국가 A, 국가 B, 국가 C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의 정도와 ‘신용’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다. 또한, 아래 표는 각 국가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다. 각 국가들의 ‘신뢰’의 정도, ‘신용’의 정도, 연간 경제 성장률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국가 A	국가 B	국가 C
연간 경제 성장률(%)	3.0	2.5	3.8

<문제 1>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분석하고, 제시문 (가)와 (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토대로 제시문 (다)를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가)의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가 지닌 특성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국가 A, 국가 B, 국가 C에 나타난 현상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경제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